유림문화-0백암산의 봄 2014.11.3 3:52 PM 페이지1 Mac1 CTP-2400-CMYK



세밀화로 만나는

백암산 우리꽃 이야기

자원활동가와 함께한 100가지 우리꽃



유림문화-0백암산의 봄 2014.11.3 3:52 PM 페이지2 Mac1 CTP-2400-CMYK

세밀화로 만나는 백암산 우리꽃 이야기

자원활동가와 함께한 100가지 우리꽃

발행일 : 2014.10. 27
총 괄 : 양해승_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책 임 : 한상식_자원보전과장
편 저 : 이기구, 김태오
세밀화 : 백암사무소 자원활동가(갈참나무 할아버지 봉사단)
사 진 : 김상열, 백암사무소 자원활동가(갈참나무 할아버지 봉사단)
발행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116
Tel. 061-392-7288, 7088 Fax. 061-392-7556
홈페이지 http://naejang.knps.or.kr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백암산 우리꽃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http://m.baekammtfs.com

청렴韓세상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6 PM 페이지3 Mac1 CTP-2400-CMYK



목 차

백암산의 봄꽃 - 07

각시붓꽃/광대나물/광대수염/광릉골무꽃/괭이밥/굴거리나무/금난초/길마가지나무/꼬마은난초/꽃마리/꿩의바람꽃/나도물통이/남산제비꽃/내장금창초/노랑붓꽃/노루귀/돌나물/둥글레/만주바람꽃/미나리냉이/백선/백양사고불매/백작약/벌깨덩굴/변산바람꽃/병꽃나무/복수초/붉은대극/비자나무/산괴불주머니/산자고/생강나무/아기단풍/애기똥풀/양지꽃/얼레지/윤판나물/으름덩굴/이팝나무/인동덩굴/자주괴불주머니/정금나무/조개나물/족도리풀/중의무릇/큰구슬붕이/큰꽃으아리/큰천남성/피나물/현호색/흰괭이눈

백암산의 여름꽃 - 111

계요등/까치수염/꽃며느리밥풀/나도수정란풀/노루발풀/노루오줌/닭의난초/닭의장풀/대흥란/땅나리/때죽나무/미나리아재비/박쥐나무/백양더부살이/범부채/뻐꾹나리/산딸나무/산수국/새박/소엽맥문동/숫잔대/애기천마/약난초/엉겅퀴/원추리/은꿩의다리/일월비비추/자귀나무/자란초/진노랑상사화/짚신나물/참나리/큰도둑놈의갈고리/큰방울새란/타래난초/털중나리

백암산의 가을꽃 - 185

가시여뀌/갈퀴나물/고마리/며느리밑씻개/물매화풀/물봉선/백양꽃/쑥부쟁이/용담/이고들빼기/이질풀/투구꽃/하늘말나리

백암산의 동물들 - 212



발간사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생물다양성과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특히 내장산국립공원은 생태학적으로 북방계식물과 남방계식물이 공존하는 다양한 생태자원과 진노랑상사화, 노랑붓꽃, 하늘다람쥐, 수달, 등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가을철 오색의 아름다운 단풍 때문에 다양한 생태자원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사계절 아름다운 내장산국립공원, 특히 백암산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세밀화로 만나는 백암산 우리꽃 이야기'는 백암산의 아름다운 사계를 홍보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여,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도감형식에서 탈피,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그린 감성적인 세밀화와 꽃이름의 유래, 전설, 꽃말 등 누구나 쉽게 조금씩 자연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이 생태자원 안내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우리지역의 꽃과 풀 그리고 나무의 이름을 알게 해주고, 이를 통해 국립공원과 자연, 나아가서는 지역과 나라를 사랑하는 밑거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밀화로 만나는 백암산 우리꽃"이 유익한 생태 탐방자료이자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더욱 비옥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 10월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양 해 승

이책의 특징

이번에 제작된 내장산국립공원 생태자원 안내서
"세밀화로 만나는 백암산 우리꽃 이야기" 는
이렇게 제작되었습니다.

백암산(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지구와 남창지구)의 계절별로 피는 다양한 우리의 고유한 야생화들을 자연자원조사, 자원모니터링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 · 분석하여 탐방객의 안내와 미래세대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제작하였습니다.

백암산의 우리꽃 100종류를 자원활동가(갈참나무할아버지)들이 사진으로 담고 직접 세밀화로 그려 기존도감과는 다르게 따뜻한 감성이 충만한 살아있는 이야기 책으로 제작했습니다.

백암산 우리꽃의 담겨져 있는 꽃 이름의 유래, 생태적 특징, 전설과 설화, 꽃말 등 일반인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해서 누구나 쉽게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의 보전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꽃마다 개화기와 찾아볼 수 있는 탐방로를 안내하여, 실제로 국립공원에서 우리 꽃을 확인하고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 실질적인 효용성을 높였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6 PM 페이지6 Mac1 CTP-2400-CMYK





백암산의 봄꽃



각시붓꽃/광대나물/광대수염/광릉골무꽃/괭이밥/굴거리나무/금난초/길마가지나무/꼬마은난초/꽃마리/꿩의바람꽃/나도물통이/남산제비꽃/내장금창초/노랑붓꽃/노루귀/돌나물/둥글레/만주바람꽃/미나리냉이/백선/백양사고불매/백작약/벌깨덩굴/변산바람꽃/병꽃나무/복수초/붉은대극/비자나무/산괴불주머니/산자고/생강나무/아기단풍/애기똥풀/양지꽃/얼레지/윤판나물/으름덩굴/이팝나무/인동덩굴/자주괴불주머니/정금나무/조개나물/족도리풀/중의무릇/큰구슬붕이/큰꽃으아리/큰천남성/피나물/현호색/흰괭이눈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6 PM 페이지8 Mac1 CTP-2400-CMYK

각시붓꽃

학명 | *Iris rossii* Baker

붓꽃과




각시붓꽃은 4~5월

작고 여린 새색시 같은 붓꽃

봄의 절정인 4~5월에 만날 수 있는 각시붓꽃은 햇살이 잘 들어오는 양지바른 산지에서 잘 자랍니다. 다른 붓꽃에 비해 그 크기가 작고 아담하여 마치 작고 여린 새색시 같은 모습이라 각시붓꽃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각시붓꽃은 잎과 꽃줄기의 길이가 비슷하다가 꽃이 진 다음에는 잎이 더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꽃의 색깔은 대부분 보라색이지만 드물게 흰색인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새색시가 수줍어하는 것처럼 각시붓꽃은 꽃이 피는 기간이 길지 않은데, 숲 속에서 봄나들이 나온 각시붓꽃을 찾아보는 행운을 누려 보는 건 어떨까요?



각시붓꽃은 4월과 5월에 백학봉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6 PM 페이지10 Mac1 CTP-2400-CMYK

광대나물

학명 | *Lamium amplexicaule* Linne

꿀풀과




광대나물은 4-5월

봄을 그리워하는 꽃

광대나물은 햇살이 많이 드는 밭이나 길가에서 잘 자라는데 봄의 대표적인 야생화답게 꽃말도 '그리운 봄' 입니다. 광대나물은 줄기에 달리는 잎이 마치 옛날 벼슬아치가 입은 정복인 관대와 닮아 '관대나물' 이라 불리다가 변형되어 '광대나물' 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전라도 사투리로는 '코딱지나물' 이라고도 하는데 꽃이 마치 코딱지가 붙어 있는 것과 닮아서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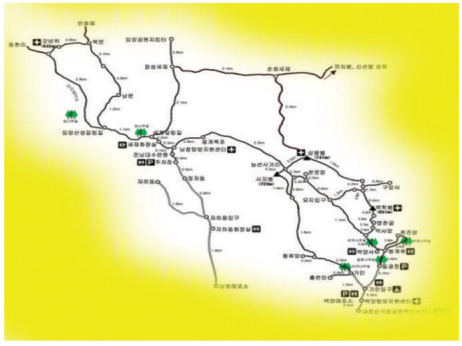
광대나물은 이름의 유래를 잘 모르더라도 꽃 아래 달린 잎이 마치 피에로의 옷처럼 생겨 쉽게 광대나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봄을 그리워하는 광대나물은 봄나물로 먹기도 하고 지혈을 하거나 뼈를 접합시키는 효능이 있는 등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광대나물은 4월과 5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6 PM 페이지12 Mac1 CTP-2400-CMYK

광대수염

학명 | *Lamium album Linne var. barbatum (Siebold & Zucc.)* Franch. & Sav.
꿀풀과




광대수염은 4-5월

수염이 난 외로운 흰 꽃

광대수염은 산과 들, 밭둑 등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광대수염은 입 자루와 줄기의 겨드랑이 사이에 긴 수염처럼 생긴 돌기가 나 있어 광대의 수염을 닮았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광대수염은 봄철 하얀색 꽃이 잎줄기에 따라 돌아가면서 피는데 혼자서 보다는 무리지어 서식하는 특성이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적 특징과는 다르게 꽃말은 '외로운 사랑', '나를 사랑해주세요.' 인데 아마도 그것은 하얀색 꽃과 수염이 나이 든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 보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봄날 숲 속과 들판에서 쉽게 만나는 광대수염이 외롭지 않게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광대수염은 4월과 5월 입암산성 습지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6 PM 페이지14 Mac1 CTP-2400-CMYK

광릉골무꽃

학명 | *Scutellaria insignis* Nakai
꿀풀과





광릉골무꽃은 5~6월

광릉에서 처음 발견된 골무 모양의 꽃

광릉골무꽃은 40~70㎝ 정도로 자라는 꿀풀과의 여러해살이풀입니다.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광릉에서 처음 발견돼 '광릉' 이라 하고, 열매를 감싸고 있는 꽃받침 통의 모양이 바느질할 때 쓰는 골무와 닮았다고 하여 골무꽃이라고 부릅니다.

광릉골무꽃은 골무꽃의 잎이 둥근 것에 비해 잎의 모양이 길쭉하고 그 크기가 커 구분할 수 있답니다.

늦은 봄 보라색으로 피는 광릉골무꽃은 마치 씩씩한 군인처럼 꽃 머리를 들고 있는데, 그러한 연유인지 꽃말이 '의협심' 이라고 합니다.



광릉골무꽃은 5월과 6월 자하동 계곡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6 PM 페이지16 Mac1 CTP-2400-CMYK

괭이밥

학명 | *Oxalis corniculata* Linne
괭이밥과




괭이밥은 5-6월

고양이가 먹는 비상약

괭이밥은 햇볕이 잘 드는 들이나 밭에서 흔히 자라는 꽃으로 '고양이가 먹는 풀' 이라고 하여 괭이밥이라고 하는데, 소화가 안 되거나 아픈 고양이가 이 꽃을 먹는다고 해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괭이밥 잎은 나물로 먹기도 하고 부스럼, 소화불량, 위경련에 쓰는 약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5월, 가장 빛나는 봄에 꽃이 피는 괭이밥은 그래서 그런지 꽃말도 '빛나는 마음' 입니다. 괭이밥은 원래 노란색 꽃을 피우며, 자주색을 띤 것은 자주괭이밥, 꽃과 잎이 큰 것은 큰괭이밥이라고 합니다.

하트모양의 잎이 토끼풀과 비슷하게 자라는 괭이밥은 아름다운 봄날을 만들어주는 재미있는 꽃이랍니다.





괭이밥은 5월과 6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6 PM 페이지18 Mac1 CTP-2400-CMYK

굴거리나무

학명 | *Daphniphyllum macropodum* Miquel
대극과





굴거리나무
꽃과 열매

아름다운 은퇴를 준비하는 나무

굴거리나무는 우리나라 남부지방 산림에서 자생하는 나무로 제주도, 남부지방 및 내장산국립공원에 분포합니다.

굴거리라는 말은 옛날사람들이 굿판을 벌일 때 잘 쓰였다고 해서 '굿거리' 로 되었다가 굴거로 변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굴거리나무의 한자 이름은 교양목(交讓木)입니다. 이것은 새 잎이 나오기 시작하여 제법 자리를 잡았다 싶으면 묵은 잎은 일제히 떨어져 버리는 특징 때문인데, 마치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가 다 자란 자식에게 권리를 넘겨 버리고 은퇴하는 모습에 비유해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새것을 만들면 묵은 것을 털어버리는 굴거리는 4~5월에 녹색의 꽃이 피우는데 꽃말은 '내사랑 나의 품에' 라는 낭만적인 것이랍니다.



굴거리는 4월과 5월 운문암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6 PM 페이지20 Mac1 CTP-2400-CMYK

금난초

학명 | *Cephalanthera falcata (Thunb.)* Blume
난초과



벌을 유혹하는 황금빛 꽃잎



금난초는 반그늘 혹은 양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금난초는 이름 그대로 황금색을 닮은 노란색 꽃이 피는 난초라는 의미입니다.

금난초는 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자라며 최근 들어 중부 지방에서도 간혹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생각됩니다.

황금빛 꽃이 피는 금난초의 꽃은 4~6월에 줄기 끝부분에 선명한 노란색으로 피는데, 3장의 꽃잎과 꽃잎처럼 생긴 3장의 꽃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꽃잎의 모양이 입술을 닮은 입술꽃잎은 난초과에 속하는 꽃의 특징으로 곤충의 눈에 띄어 수분이 쉽게 되도록 한답니다.

금난초의 꽃말은 '주의', '경계' 인데 황금빛의 아름다운 꽃에 현혹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금난초는 4월에서 6월까지 은선동 습지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길마가지나무

학명 | *Lonicera harai* Makino
인동과









길마가지는 3~4월

진한 향기로 나그네의 발길을 잡는 꽃

산기슭이나 골짜기에서 3m 정도로 자라는 길마가지는 열매의 모양이 소나 말에 걸쳐 물건을 나르는 길마와 같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3월에서 4월 하얀색 꽃을 피우는 길마가지는 '소박함' 이라는 꽃말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향기가 너무 좋아 나그네의 가는 길을 막을 만해서 '길 막는 가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길마가지는 초여름에 결실을 맺는데, 초록색 열매가 점차 붉은색 하트모양을 변해 보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이른 봄 숲을 향기로 감싸는 길마가지의 향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건 어떨까요?



길마가지는 3월과 4월 입암산성 습지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6 PM 페이지24 Mac1 CTP-2400-CMYK

꼬마은난초

학명 | *Cephalanthera erecta (Thunb.) Blume var. subaphylla (Miyabe & Kudo)* Ohwi

난초과




꼬마은난초는 4~5월

숲속에 숨어있는 하얀 꼬마

꼬마은난초는 비옥한 낙엽수림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꼬마은난초의 이름은 꽃이 은색을 띤 은난초에 비해 식물전체의 크기가 1/2정도밖에 되지않아 꼬마 은난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크기 이외에 꼬마은난초와 은난초를 구분하는 방법은 꽃의 모습을 통해서인데, 은난초의 꽃송이가 서로 붙어서 피는 것에 비해 꼬마은난초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꼬마은난초의 꽃말은 '총명' 인데 숲속에 핀 은색의 이 꼬마를 보면 총명이라는 단어가 절로 생각난답니다.

꼬마은난초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식물로 옮겨 길러서는 안되고 자생지에서 잘 보호되어야 할 희귀종입니다.




꼬마은난초는 4월과 5월 남창계곡 인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꽃마리

학명 | *Trigonotis peduncularis (Trevir.)* Bentham
지치과






꽃마리는 3-4월

하늘색을 닮은 작은 봄꽃

꽃마리는 반그늘 혹은 양지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두해살이 풀입니다. 꽃마리의 이름은 꽃대의 윗부분이 말려있다는데서 유래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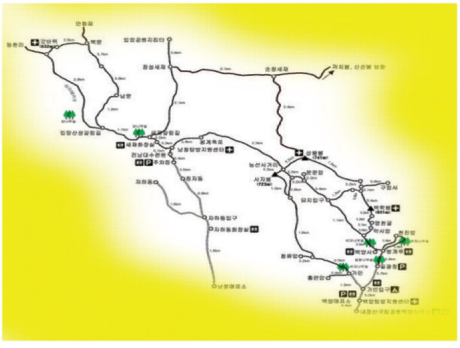
꽃마리는 그 크기가 너무 작아 지나치기 쉬운 꽃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연한 하늘색의 아름다운 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꽃마리와 비슷한 꽃으로 참꽃마리와 덩굴꽃마리가 있는데 마치 꽃마리를 크게 확대한 것처럼 생겼습니다.

꽃마리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요' 라고 하는데 봄에 피는 작은 꽃마리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보는 것도 봄날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꽃마리는 3월과 4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6 PM 페이지28 Mac1 CTP-2400-CMYK

꿩의바람꽃

학명 | *Anemone raddeana* Regel
미나리아재비과




꿩의바람꽃은 3~4월

눈속에 피는 꿩을 닮은 꽃

꿩의바람꽃은 이른 봄, 눈이 녹기 시작할 무렵에 꽃줄기 끝에 한 송이씩 흰색 꽃을 피우는데, 햇빛이 없으면 꽃을 피우지 않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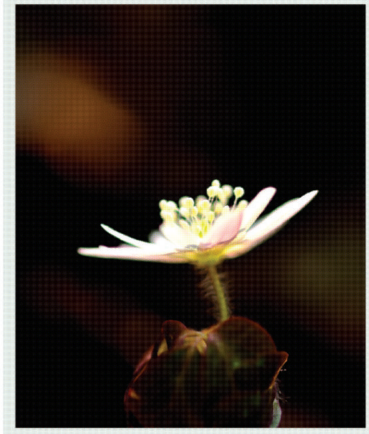
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꽃인 꿩의바람꽃은 꿩이 짝짓기를 하는 시기에 피기 때문에 이름을 붙였다는 설과 꽃 봉우리를 오므리고 잎이 말려 있는 모습이 꿩의 모습과 닮아 이름 붙여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꿩의바람꽃은 바람꽃 중에서 큰 꽃에 속하는데 봄철 백암산에 오르면 하얀색 꽃이 가느다란 줄기에 달려 봄바람에 한들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꿩의바람꽃은 3월과 4월 백양골 자연관찰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6 PM 페이지30 Mac1 CTP-2400-CMYK

나도물통이

학명 | *Nanocnide japonica* Blume
쐐기풀과





작지만 나도 물통이랍니다.



나도물통이는 산기슭 그늘진 곳에서 모여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나도물통이는 작지만 물통이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물통이란 식물은 줄기에 물을 담고 있어 물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나도물통이도 물통이라 물을 담을 수 있을거라 생각 하겠지만 물을 담기 힘들만큼 작은 꽃입니다.

나도물통이는 다른 꽃처럼 곤충을 불러 모을 꽃잎이 없지만, 용수철 같은 수술이 꽃가루를 멀리 튕겨줘 튕긴 꽃가루는 바람을 타고 다른 꽃에 날아가서 수분을 한답니다.

자주빛 도는 작은 꽃 나도물통이는 잘 알려지지 않아 꽃말이나 전설이 없는 식물이지만 문득 산속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귀여운 꽃이랍니다.



나도물통이는 4월과 5월 백양사 부근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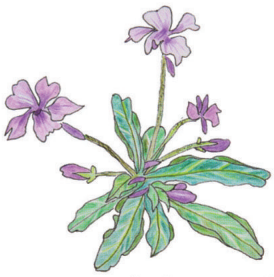




남산제비꽃

학명 | *Viola dissecta Lede bour var. chaerophylloides (Regel)* Makino
제비꽃과






남산제비꽃은 3~4월

남산에서 처음 발견된 하얀색 제비꽃

남산제비꽃은 양지 혹은 반음지의 산과 들에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남산제비꽃은 남산에서 처음 발견된 제비꽃이란 의미이고, 제비꽃은 제비가 강남에서 돌아올 때 피는 꽃이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비꽃은 다른 말로 오랑캐꽃이라고도 하는데 봄철 오랑캐가 쳐들어 올 때 피는 꽃이라는 의미입니다.

남산제비꽃은 다른 제비꽃과 다르게 흰색의 꽃이 피며 잎은 코스모스의 잎처럼 생겨 구별할 수 있습니다. 꽃말은 '성실', '교양', '순진무구한 사랑' 등인데 하얀색의 남산제비꽃과 어울리는 꽃말을 갖고 있답니다.



남산제비꽃은 3월과 4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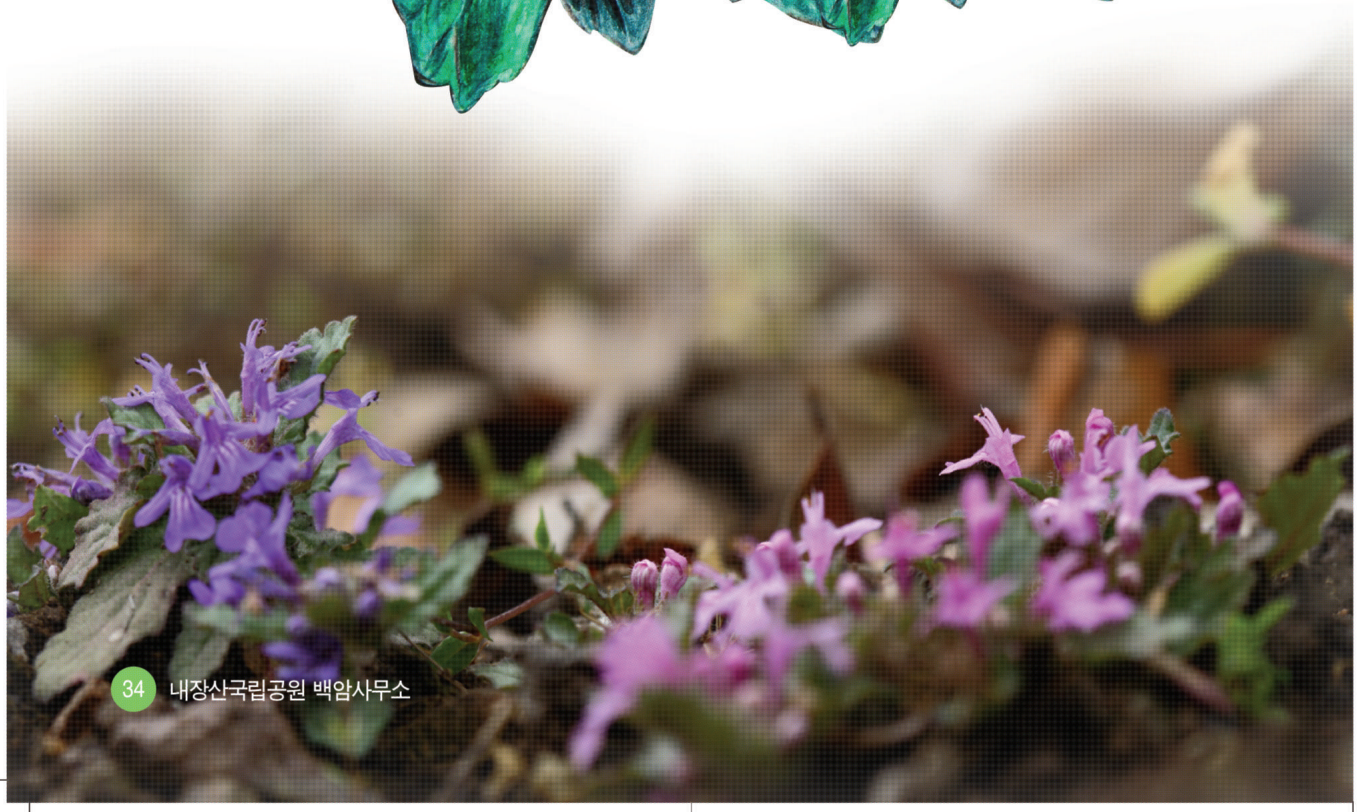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6 PM 페이지34 Mac1 CTP-2400-CMYK

내장금창초

학명 | *Ajuga decumbens thunberg* var. rosa Y.Lee
꿀풀과









상처에 특효가 있는 분홍색 꽃

금창초는 습기가 많은 곳이나 양지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내장금창초는 내장산에서 발견된 금창초라는 뜻인데 금창초(金瘡草)라는 이름은 상처 난 곳에 약초로 쓰는 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창초는 코피나 부스럼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내장금창초와 금창초는 색깔로 구분하는데 금창초는 자주색으로 피고 내장금창초는 분홍색이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장금창초의 꽃말은 '참사랑', '희생'으로, 금창초의 생즙을 내어 상처를 치료했던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장금창초는 4월과 5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6 PM 페이지36 Mac1 CTP-2400-CMYK

노랑붓꽃

학명 | *Iris koreana* Nakai
붓꽃과





노랑붓꽃은 4~5월

땅위로 내려온 두 송이의 여신

노랑붓꽃은 비옥하고 습도가 높은 숲속 그늘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노랑붓꽃의 이름은 노란색을 띠는 붓을 닮은 꽃이란 의미로, 일반적인 모습은 금붓꽃과 닮아 있지만 하나의 꽃대에 두 송이의 꽃이 피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붓꽃은 학명이 아이리스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지개의 여신을 말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처럼 4~5월이면 노랑붓꽃은 화사하고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노랑붓꽃의 꽃말은 '믿는자의 행복' 이라고 합니다. 땅으로 내려온 여신 같은 꽃 노랑붓꽃은 한국특산종이자 멸종위기식물 II급으로 우리가 보호해야할 소중한 꽃입니다.





노랑붓꽃은 4월과 5월 자하동 계곡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6 PM 페이지38 Mac1 CTP-2400-CMYK

노루귀

학명 | *Hepatica asiatica* Nakai
미나리아재비과




노루귀는 3월

노루의 귀를 닮은 잎을 가진 봄꽃

노루귀는 햇볕이 잘 비치고 토양이 비옥한 산지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노루귀라는 이름은 봄철 꽃이 피고 나서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노루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꽃은 흰색, 분홍색, 청색으로 꽃줄기에 한 송이 달리는데 작고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는 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야생화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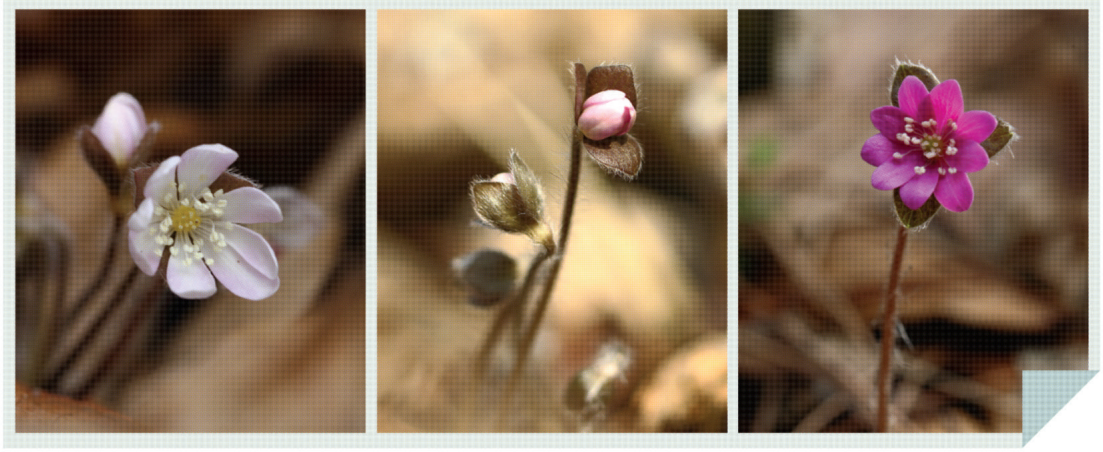
노루귀의 꽃말은 '당신을 믿는다. 그리고 신뢰한다' 인데 추운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믿는 것 처럼 봄의 전령인 노루귀에도 그런 꽃말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른 봄에서 4월까지 피는 노루귀는 약재로도 사용되는데 진통과 두통 및 장염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노루귀는 3월 백양 탐방지원센터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40 Mac1 CTP-2400-CMYK

돌나물

학명 | *Sedum sarmentosum* Bunge
돌나물과






돌나물은 4~5월

돌에서 피어나는 노란색 꽃

돌나물은 햇볕이 좋은 곳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돌나물이란 이름은 돌이 많은 곳에 잘 자란다고 해서 돌나물이라고 한답니다.

돌나물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옛날 불타 버린 절터에 목이 달아나 훼손된 불상과 돌무더기 바위틈에 돌나물이 피었답니다. 돌을 좋아하는 돌나물이 무두불의 전신을 에워싸고 머리 부분으로 수북이 뭉쳐 피어, 마치 부처님 전신에 황금 갑옷을 입힌 듯 보이자 불심 깊은 어느 중생이 불갑초(佛甲草)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4~5월에 피는 돌나물은 봄철에 먹는 대표적인 나물로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어 골다공증에 유용한 식물이기도 한답니다. 돌나무은 조금만 심어도 번식을 잘하기 때문인지 꽃말이 '근면' 입니다.



돌나물은 4월과 5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42 Mac1 CTP-2400-CMYK

둥굴레

학명 | *Polygonatum odoratum (Mill)* Druce var. pluriflorum (Miq.) Ohwi
백합과





둥글레는 4-5월

한의학에서 첫 번째로 꼽는 약재

둥굴레는 햇볕이 좋거나 반그늘의 물 빠짐이 좋고 토양이 비옥한 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둥글레라는 이름은 꽃이 둥굴 둥굴하게 생겨 유래됐다는 설과 동그란 열매가 열어 그렇게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둥굴레는 동의보감에서 생약 중 첫 번째로 꼽히는 약재인데 중국에서는 한무제와 선인이 즐겨먹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둥굴레의 효능으로는 자양, 강장의 효과이 있고 침이 생겨나게 하는 작용을 하고, 허약체질, 폐결핵, 마른기침, 구강건조증, 당뇨병, 심장쇠약,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둥굴레의 꽃말은 '고귀한 봉사' 인데 한약재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둥굴레와 어울리는 꽃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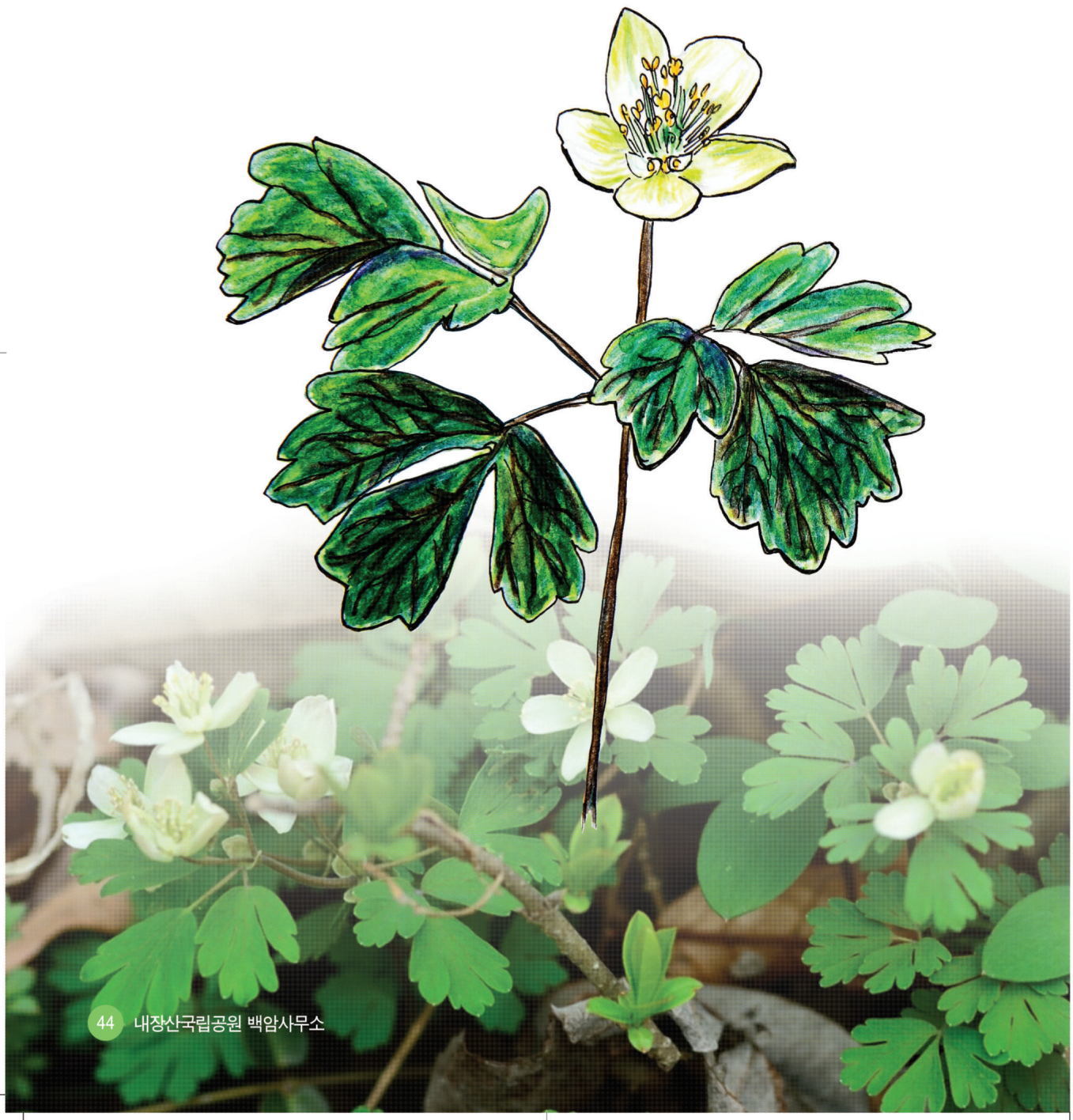
둥글레는 4월과 5월 상왕봉 능선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44 Mac1 CTP-2400-CMYK

만주바람꽃

학명 | *Semiaquilegia mandshurica* Komarov
미나리아재비과




만주바람꽃은 3~4월

만주서 처음 발견된 바람꽃

만주바람꽃은 부엽토가 많은 양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만주바람꽃은 만주에서 최초로 발견된 바람꽃이라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만주바람꽃은 덩이뿌리가 달린 땅속줄기 끝에서 잎과 줄기가 나와 성장하는데, 4~5월 연노랑색의 작고 귀여운 꽃이 핍니다.

다른 바람꽃에 비해서도 그 크기가 작은 만주바람꽃은 꽃말이 '덧없는 사랑' 인데, 크고 화려한 꽃이 아닌 작고 수수하면서도 아담한 꽃의 모습과 어울리는 꽃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주바람꽃은 3월과 4월 백양골 자연관찰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46 Mac1 CTP-2400-CMYK

미나리냉이

학명 | *Cardamine leucantha* (Tausch) O. E. Schulz
십자화과




미나리냉이는 4~5월

미나리 잎에 냉이꽃

미나리냉이는 저지대의 그늘진 골짜기와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미나리냉이의 꽃은 냉이와 비슷하고 잎은 미나리와 비슷해서 '미나리냉이' 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정확히 보면 미나리의 잎과 같다고 할 수 없지만, 잎의 갈라짐과, 높이, 흰 꽃이 모여 피는 것, 물을 좋아하는 것이 미나리와 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나리보다는 냉이와 비슷한 식물입니다.

미나리냉이는 어린순을 찬물에 우려 나물로 해 먹기도 하고 뿌리는 채자칠(菜子七)이라고 부르며 백일해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답니다. 미나리냉이의 꽃말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입니다.





미나리냉이는 4월과 5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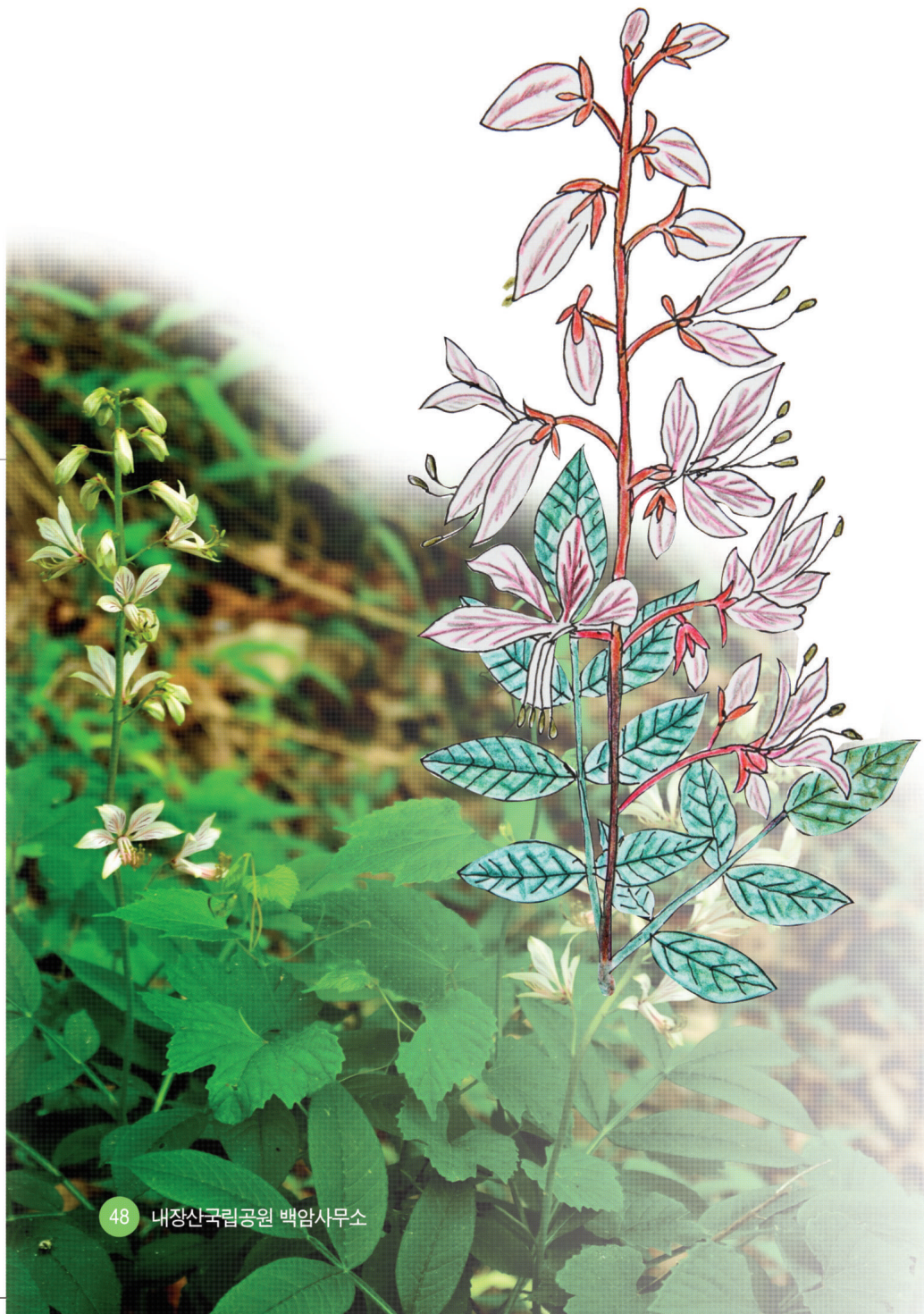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48 Mac1 CTP-2400-CMYK

백선

학명 | *Dictamnus albus* Linne
운향과




백선은 4~5월

봉황을 닮은 산삼과 같은 꽃

백선은 반그늘 혹은 햇볕이 잘 드는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운향과 식물들이 보통 그렇지만 백선 또한 향기를 분비해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답니다. 백선은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벌레들은 백선에는 잘 오지 않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백선의 꽃말은 '방어' 입니다.

백선은 뿌리의 모양이 봉황을 닮고 산삼과 유사한 효과가 난다고 하여 '봉삼' 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뿌리는 황달이나 구충약으로 사용하고, 뿌리껍질을 피부병 치료제로 사용하며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천식, 무좀, 폐결핵, 관절염, 위장병, 간염, 당뇨병 등 다양한 증상에 효과가 있는 식물입니다.



백선은 4월과 5월 남창지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백암산의 봄

백양사고불매(매화)

학명 | *Prunus mume*
장미과






백양사고불매는 3월말에서 4월초

봄날 백양사를 향기로 가득 채우는 꽃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3월말이면 백양사는 매화향기로 가득합니다. 바로 장성 백양사 고불매(古佛梅)가 만개하기 때문입니다. 수령 350년, 나무 높이 5.3m의 이 매화나무는 2007년 천연기념물 제48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원래 이 매화나무는 1700년경부터 스님들이 백양사에서 북쪽으로 100m쯤 떨어진 옛 백양사 앞뜰에 심었던 것인데, 1863년 사찰을 현재의 위치로 옮겨 지을 때 홍매와 백매 한 그루씩도 같이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매는 죽어 버리고 지금의 홍매 한 그루만 살아남았습니다.

1947년 부처님의 원래의 가르침을 기리자는 뜻으로 백양사(白羊寺) 고불총림(古佛叢林)을 결성하면서 이 매화나무를 '고불매' 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백양사의 역사와 함께한 고불매는 백양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양사고불매는 3월말에서 4월초 백양사 경내에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52 Mac1 CTP-2400-CMYK

백작약

학명 | *Paeonia japonica* (Makino) Miyabe & Takeda
미나리아재비과




백작약은 4~5월

수줍음을 잘 타는 꽃

백작약은 깊은 산속 토양이 비옥하고 반그늘이며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작약이란 '작(배나 가슴의 발작)을 그치게 하는 약' 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 백작약은 흰 작약이라는 의미입니다.

백작약은 줄기 끝에 한 송이 꽃이 피는데 주로 새벽녘에 피었다가 해가 솟아나면 꽃잎이 오므라들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백작약의 꽃말인 '수줍은, 부끄러움' 과 어울려 보입니다.

한방에서 기본적으로 갖춰 놓아야할 5대 약재중 하나이자 복통이나 신경통 등 통증을 멈추게 하는 백작약은 꽃이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그래서 무분별한 채취로 지금은 야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꽃이기도 합니다.



백작약은 4월과 5월 남창지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54 Mac1 CTP-2400-CMYK

벌깨덩굴

학명 | *Meehania urticifolia* (Miq.) Makino
꿀풀과




벌깨덩굴은 4~5월

꿀이 가득한 깻잎은 닮은 꽃

벌깨덩굴은 습기가 있는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꽃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고 꿀이 많아 벌들이 잘 찾아온다고 하여 '벌' 자가 붙었고 잎이 깻잎을 닮아 '깨' 가 더해져 벌이 많이 찾는 깻잎을 닮은 덩굴식물이라 벌깨덩굴이 되었답니다.

벌깨덩굴은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위로 곧게 자라다가 열매가 맺히면 이름처럼 다른 식물을 감는 덩굴로 변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늦은 봄날 연보라의 꽃이 피는 벌깨덩굴은 꽃말이 '순결, 존엄' 이라고 합니다.



벌깨덩굴은 4월과 5월 백양골 자연관찰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56 Mac1 CTP-2400-CMYK

변산바람꽃

학명 | *Eranthis byunsanensis* B. Sun
미나리아재비과





변산바람꽃은 3-4월

겨울과 봄을 구분해 주는 꽃

변산바람꽃은 습기가 많고 반그늘 또는 양지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변산바람꽃은 변산반도에서 처음 발견된 바람꽃으로 우리나라 특산 식물입니다.

변산바람꽃은 봄이 시작될 무렵 가느다란 꽃대에 연한 분홍빛이 도는 흰색 꽃이 피는데 겨울과 봄의 계절을 나누는 풀이란 의미로 절분초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 숲에 봄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작은 꽃대와 함께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변산바람꽃은 새봄을 알리는 전령사이자 자연의 신비함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변산바람꽃은 3월과 4월 백양골 자연관찰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58 Mac1 CTP-2400-CMYK

병꽃나무

학명 | *Weigela subsessilis* (Nak.) Bailey
인동과





병꽃나무는 4~5월

노란색 빨간색 꽃 피우는 요술나무

병꽃나무는 주로 산지의 숲속에서 자라는 작은키의 나무입니다. 병꽃나무의 이름은 꽃 모양이 병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인 병꽃나무는 나무 한그루에서 두 가지 꽃이 피는 신기한 나무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 꽃을 피울 때는 녹색빛이 가미된 연한 노란색으로 꽃을 피우고 점점 붉게 변해가면서 시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 나무에서 두 가지 꽃을 모두 볼 수 있답니다.

아름다운 두 가지 색을 가지는 병꽃나무는 주로 관상용으로 쓰이고 꽃말은 '전설' 이라고 합니다.



병꽃나무는 4월과 5월 남창 자연관찰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60 Mac1 CTP-2400-CMYK

복수초

학명 | *Adonis amurensis* Regel et Radde
미나리아재비과






북수초는 3월

이른 봄에 피는 행운의 꽃

복수초는 햇볕이 잘 드는 양지와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복수초는 복 복(福)자에 목숨 수(壽)자, 즉 복을 많이 받고 오래 살라는 뜻이 담겨 있는 좋은 의미를 지닌 꽃이랍니다.

복수초는 마치 황금색 잔처럼 생겼는데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봄꽃입니다.

이른 봄 흰 눈 덮인 들판을 뚫고 피어나는 복수초의 꽃말 또한 '영원한 행복' 입니다. 여러분들도 찬 기운이 남아있는 이른 봄에 백암산의 노란 복수초를 찾아 행복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북수초는 3월 백양골 자연관찰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붉은대극

학명 | *Euphorbia ebracteolata* Hayata
대극과




붉은대극은 3~4월

약동하는 봄처럼 붉고 힘찬 기운

붉은대극은 습기가 많은 황토지대에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줄기를 자르면 나오는 흰유액이 독성이 강해 목구멍을 몹시 자극한다고 하여 대극(大戟:무기)이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대극의 잎이 버드나무의 잎처럼 생기고, 잎을 자르면 옻나무처럼 흰 즙액이 나온다고 하여 '버들옻' 이라고도 부릅니다. 대극 중 새싹이 날 때 붉은빛을 띤 것이 '붉은대극' 입니다.

붉은대극은 3~4월에 붉은색 새싹이 마치 꽃처럼 올라오고 4~5월에 연한 초록빛의 꽃이 피는데 황달과 설사에 특효약이기도 합니다.



붉은대극은 3월과 4월 백양 탐방지원센터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64 Mac1 CTP-2400-CMYK

비자나무

학명 | *Torreya nucifera* (L.) Siebold. & Zuccarini
주목과




비자나무는 4~5월

재주 많은 백암산의 터줏대감

비자나무는 따뜻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서식하는 늘푸른 나무입니다. 비자나무라는 이름은 잎의 모습이 아닐 비(非)자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백암산에는 천연기념물 제153호인 '장성백양사 비자나무 숲' 이 있는데 이 숲은 600년 전인 고려시대 각진국사가 백성들을 위해 심은 것이 시초가 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비자나무 꽃은 4월에 피는데 연갈색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나무는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는 나무로 열매는 일찍부터 구충제로 사용되었고 목재는 질이 좋기 때문에 고급 가구나 바둑판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또 비자열매가 맺힐 무렵에는 비자향이 온 백암산에 퍼져 시원하고 상큼한 바람을 느끼게 한답니다.


비자나무는 4월과 5월 약사암 입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66 Mac1 CTP-2400-CMYK

산괴불주머니

학명 | *Corydalis speciosa* Maximowicz
양귀비과





산괴불주머니는 4~5월

상사병에 걸린 처녀의 한생

산괴불주머니는 습기가 많은 숲속에서 잘 자라는 두해살이 풀입니다. 복주머니를 장식하는 노리개인 괴불주머니를 닮았다고 하여 이름 지어진 괴불주머니 중에서 산에서 많이 볼 수 있어 산괴불주머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산괴불주머니는 현호색과 닮았지만 현호색보다 꽃이 가늘고 노락색으로 피며, 꿀주머니가 위쪽으로 조금 휘어진 점이 다르답니다.

산괴불주머니에는 안타까운 전설이 있답니다. 옛날 약초를 채집하며 살아가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약초를 채집한다는 소문을 듣고 한 청년이 소녀에게 약초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첫눈에 반한 소녀는 소중히 간직했던 약초를 청년에게 주었고 그 청년은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얼마 후 그 청년에게 사랑하는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슬픔에 잠겨 끝내는 병이 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소녀가 약초를 캐던 산에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이 바로 산괴불주머니입니다.



산괴불주머니는 4월과 5월 백양골 자연관찰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68 Mac1 CTP-2400-CMYK

산자고

학명 | *Tulipa edulis* (Miq.) Baker
백합과




산자고는 4~5월

자애로운 시어머니

양지바르고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는 산자고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산자고의 이름과 관련된 전설이 내려오는데, 효성 지극한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사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고약한 등창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 어머니는 약초를 찾아 산속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눈에 아직 꽃이 피기 이른 계절에 별처럼 예쁘게 생긴 작은 꽃이 눈에 띄었고 그 꽃의 뿌리를 으깨어 며느리 등창에 발라주자 감쪽같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꽃을 산자고(山慈姑)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산에 사는 자애로운 시어머니라는 뜻이랍니다. 꽃며느리밥풀, 며느리밑씻개처럼 고된 시집살이를 은연중에 나타낸 꽃이 있는 반면 자애로운 시어머니와 관련된 꽃도 있답니다.

종기 · 후두염 · 편도선염 등 다양한 증상에 효과가 있는 산자고의 꽃말은 '봄처녀'와 '자애로운 시어머니'랍니다.



산자고는 3월과 4월 쌍계루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70 Mac1 CTP-2400-CMYK

생강나무

학명 | *Lindera obtusiloba* Blume
녹나무과






생강나무는 4~5월

생강냄새를 풍기는 나무

생강나무는 산지의 계곡이나 숲 속의 냇가에서 자라는 큰키나무입니다. 3월에 자잘한 노란색 꽃이 잎보다 먼저 피는데 꽃, 잎, 가지에서 생강 같은 알싸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생강나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매는 9월에 검은색으로 맺는데 동백나무가 피지 않는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는 생강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 동백나무 대신 머릿기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백나무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은 사실 생강나무 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강냄새가 나지만 생강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생강나무의 꽃말은 '헛됨' 이라고 합니다. 이른 봄 알싸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온다면 생강나무를 생각해 주세요.



생강나무는 3월 백양 탐방지원센터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72 Mac1 CTP-2400-CMYK

아기단풍

학명 | *Acer micro-sieboldianum* Nakai
단풍나무과




단풍나무는 4~5월

아기의 손을 닮은 단풍나무

아기단풍은 산지 계곡과 숲에서 잘 자라는 큰키나무입니다. 단풍나무는 가을철 잎이 붉게 물든다하여 단풍나무로 불리게 되었으며, 그 중 단풍잎의 크기가 다른 단풍보다 작은 단풍을 아기단풍이라고 부릅니다.

아기단풍은 잎도 작지만 잎 표면에는 털이 있고 뒷면에는 털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기단풍은 특히 백암산의 대표적인 단풍나무로 유명합니다. 새빨간 다른 단풍과 다르게 노란색과 주황색, 그리고 붉은색 등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풍나무 꽃은 봄에 피는데 작은 꽃을 자세히 관찰하면 마치 별사탕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을철의 단풍도 아름답지만 봄철 단풍 꽃도 색다른 볼거리입니다.



단풍나무는 4월과 5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74 Mac1 CTP-2400-CMYK

애기똥풀

학명 | *Chelidonium majus* Linne var. asiaticum (Hara) Ohwi
양귀비과





애기똥풀은 4~5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소박한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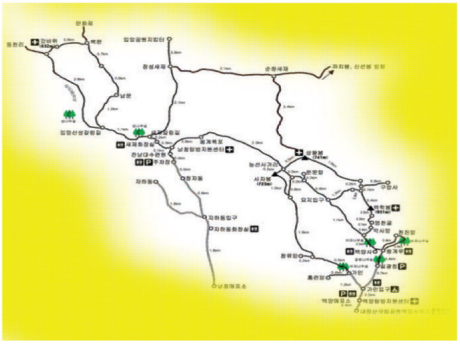
애기똥풀은 양지 바른 곳이면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두해살이 풀이랍니다. 꽃줄기를 자르면 진노랑의 액체가 뭉쳐지는데 이 모양이 마치 아기의 똥과 같다고 하여 애기똥풀이라고 부른답니다.

애기똥풀은 진노랑색을 내는 천연염색제이기도 하고 진통, 위와 장의 경련에 효과가 있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비가 자기 새끼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애기똥풀을 물어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기도 합니다.

숲속과 들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애기똥풀이지만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식물로 꽃말은 '몰래주는 사랑' 이랍니다.



애기똥풀은 4월에서 6월까지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양지꽃

학명 | *Potentilla fragarioides* Linne var. major Maximowicz
장미과




양지꽃은 4~5월

봄날 양지바른 들판에 피는 꽃

양지꽃은 숲속과 들판에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양지꽃은 봄이 오면 양지 바른 곳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어 '양지꽃' 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봄철에는 양지꽃과 비슷한 노란색 꽃들이 많이 피는데 뱀딸기, 가락지나물 등입니다. 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답니다.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가락지나물은 잎이 5개로 다른 꽃과 다르고 뱀딸기와 양지꽃은 잎은 비슷하지만 양지꽃은 뱀딸기와 다르게 꽃이 뭉쳐서 나는 특징이 있답니다.

봄날 따듯한 햇살을 받고 피어난 양지꽃의 꽃말은 '사랑스러움' 입니다. 여러분들도 양지꽃을 보신다면 작고 아담한 꽃에 반하게 될 것입니다.



양지꽃은 4월과 5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78 Mac1 CTP-2400-CMYK

얼레지

학명 | *Erythronium japonicum* Decaisne
백합과




얼레지는 4~5월

봄을 맞이하는 봄처녀

높은 산의 비옥한 반그늘에서 잘 자라는 얼레지는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좋은 환경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야만 꽃을 피우는 식물로 건강한 생태계를 나타내는 지표 식물이기도 합니다.

얼레지의 꽃말은 '바람난 여인' 혹은 '질투'인데 아마도 이것은 우리나라 야생화 중 보기 드물게 화려한 자태를 뽐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레지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피며 잎에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어 얼레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레지의 잎은 한장 혹은 두 장 나오는데, 한 장을 가진 잎은 꽃을 피우지 않고 꼭 두 장이 있어야 꽃대가 올라온답니다.

얼레지 꽃은 자주색이고, 간혹 특이한 흰색 얼레지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봄날 건강한 국립공원 숲속에서 봄처녀 같은 얼레지를 찾아보세요.



얼레지는 4월과 5월 남창 자연관찰로와 새재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80 Mac1 CTP-2400-CMYK

윤판나물

학명 | *Disporum sessile* D. Don ssp. flavens Kitagawa
백합과




윤판나물은 4~5월

겸손의 마음을 지닌 꽃

윤판나물은 반그늘이 있는 비옥한 토지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윤판나물은 이름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온답니다. 옛날 윤판서가 화려한 꽃송이를 피울수록 머리를 숙이는 꽃의 모습을 보고 백성을 위한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화려한 꽃이 바로 윤판나물이라고 합니다.

윤판나물은 4~6월 연녹색의 꽃줄기에 노란색 꽃이 피는데 꽃말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마도 꽃이 필수록 머리를 숙이는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그러한 꽃말을 가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봄날 백암산의 숲속에서 윤판나물을 찾아 겸손을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윤판나물은 4월에서 6월까지 남창 자연관찰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82 Mac1 CTP-2400-CMYK

으름덩굴

학명 | *Akebia quinata* (Thunb.) Decaisne
으름덩굴과




으름덩굴은 4~5월

숲속에서 만나는 토종 바나나

으름덩굴은 반그늘 혹은 음지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덩굴 식물입니다. 으름덩굴 이름의 유래는 으름열매를 씹어 먹으면 첫맛이 차가운 얼음의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얼음' 이라 부르다가 나중에 '으름' 이 되었다고 합니다.

으름덩굴의 꽃말은 '재능' 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으름덩굴에 여러 가지 쓰임이 있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으름덩굴의 어린잎은 차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여름에 익은 열매의 흰 과육은 바나나와 비슷해 일명 "토종 바나나" 입니다. 또 뿌리와 가지는 약용으로 쓰인답니다. 참 재능이 많은 식물이죠?



으름덩굴은 4월에서 5월 입암산성 습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84 Mac1 CTP-2400-CMYK

이팝나무

학명 | *Chionanthus retusus* Lindley et Paxton
물푸레나무과





이팝나무는 4~5월

쌀밥을 닮은 꽃

이팝나무는 산골짜기나 들판에서 잘 자라는 큰키나무입니다. 이팝나무는 니팝나무, 니암나무 뻣나무라고도 하는데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입하(立夏) 무렵에 꽃이 피기 때문에 이팝나무라고 불렀다는 설과 나무에 열린 꽃이 쌀밥과 같다고 하여 이팝나무라고 불린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팝나무가 쌀밥과 같다는 설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가난한 이씨 성을 가진 선비가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에게는 쌀밥을 드리는 대신 자신의 밥은 이팝나무 꽃을 따서 밥그릇에 담았답니다. 사람들은 이런 효심을 칭송하였고 그 나무를 이씨의 밥인 '이밥나무, 이밥나무' 하고 부르다 오늘에 와서 이팝나무라고 불리어지게 되었답니다.



이팝나무는 4월과 5월 쌍계루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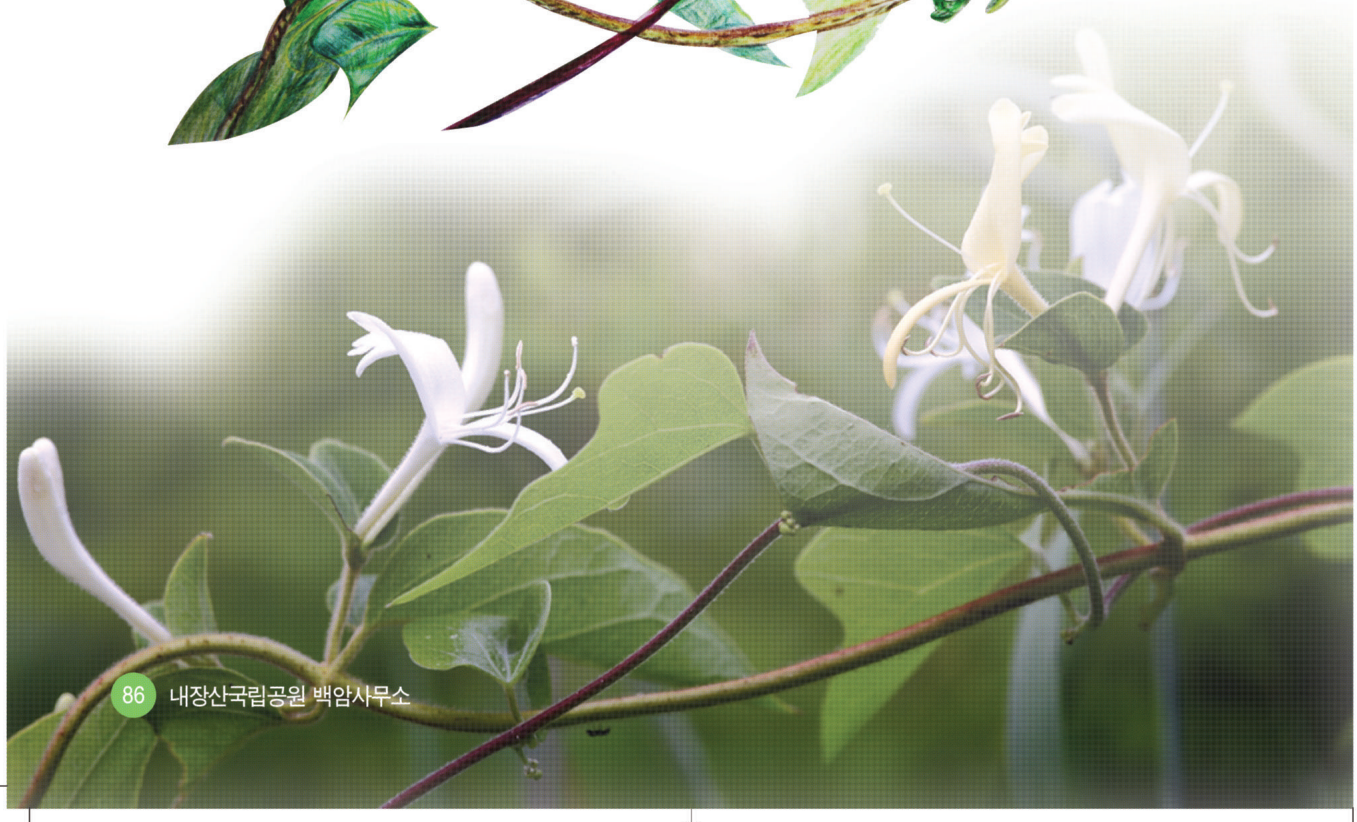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86 Mac1 CTP-2400-CMYK

인동덩굴

학명 | *Lonicera japonica* Thunberg
인동과






인동덩굴은 4~5월

금색과 은색 꽃이 피는 사랑의 꽃

인동덩굴은 토양의 비옥한 숲속에서 잘 자라는 덩굴성의 작은키나무입니다. 인동덩굴이란 이름은 잎을 붙인 채 모진 겨울을 나기 때문에 참을 '인', 겨울 '동'을 써서 '인동'(忍冬)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동덩굴은 한방에서는 금은화라고하는데 이와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슬 좋은 부부가 어렵게 쌍둥이 자매를 얻었습니다. 이 쌍둥이 이름은 금화와 은화였고 선녀같이 예쁘고 마음씨도 고와 마을 사람 누구나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쌍둥이 자매는 열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죽기 전에 비록 자신들은 죽지만 죽어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초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두 쌍둥이 무덤에서 이름 모를 약초가 자라났고 처음은 흰색이다가 점차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금은화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몇 년 뒤, 마을에 열병이 다시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쌍둥이 말을 기억하고 약초를 달여 먹자 모두 병이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자매의 마음을 간직한 인동덩굴의 꽃말은 '우애', '헌신적인 사랑' 이라고 합니다.



인동덩굴은 4월과 5월 입암산성 습지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88 Mac1 CTP-2400-CMYK

지주괴불주머니

학명 | *Corydalis incisa* (Thunb.) Persoon
양귀비과




자주괴불주머니는 4~5월

보물을 가득 담은 자주주머니

자주괴불주머니는 습기가 많은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라는 두해살이 풀입니다. 자주괴불주머니라는 이름은 자주색을 띠는 괴불주머니라는 뜻인데, 괴불주머니는 꽃이 복주머니에 다는 노리개인 괴불주머니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주괴불주머니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주로 자라는 봄꽃으로 숲속에 무리지어 피어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자주괴불주머니의 꽃말은 '보물주머니' 인데 꽃의 모양에서 유래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주괴불주머니는 살균과 소독에 효과가 있고 종기 등에 사용하는 약재이지만 독성이 있어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한답니다.





자주괴불주머니는 4월과 5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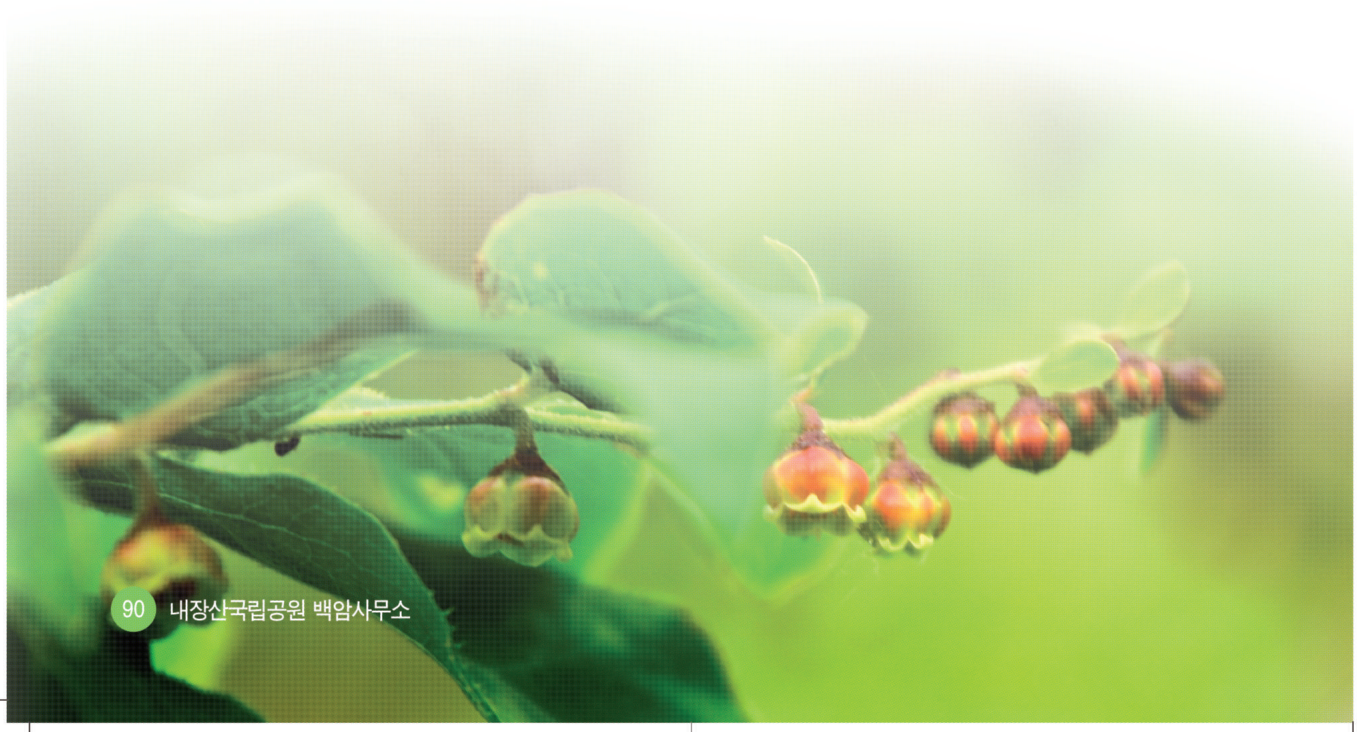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90 Mac1 CTP-2400-CMYK

정금나무

학명 | *Vaccinium oldhami* Miquel
진달래과






정금나무는 4~5월

우리나라의 야생 블루베리

정금나무는 산지의 햇볕이 잘 드는 능선이나 다른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바위지대에서 잘 자라는 나무로 종가리나무라고도 합니다.

정금나무는 이식하여 키우기 어려운 나무인데, 이식하면 일년 동안 성장을 하지 않아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답니다.

정금나무 꽃은 5~6월에 피는데 모습이 마치 작은 종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가을에 익는데 모습이나 효능이 블루베리와 닮아 정금나무는 우리나라의 야생 블루베리라고도 합니다. 산속에서 만나는 종을 닮은 붉은빛 정금나무 꽃의 꽃말은 '추상' 입니다.



정금나무는 5월과 6월 남창지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7 PM 페이지92 Mac1 CTP-2400-CMYK

조개나물

학명 | *Ajuga multiflora* Bunge
꿀풀과




조개나물은 4~5월

조개 모양의 꽃

조개나물은 양지쪽에 토양이 비교적 메마른 곳, 묘지나 잔디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조개나물의 이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보라색 꽃송이가 약간 벌어져 혀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조개와 닮아서라고 합니다.

보통 이름에 '나물' 이라고 붙은 식물들은 나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조개나물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 나물로 잘 먹지 않습니다.

묘지와 같은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징 때문에 그런 지 조개나물의 꽃말은 '존엄' 입니다.



조개나물은 4월과 5월 백학봉 인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8 PM 페이지94 Mac1 CTP-2400-CMYK

족도리풀

학명 | *Asarum sieboldii* Miquel
쥐방울덩굴과




족도리풀 4~5월

모녀의 정이 담긴 꽃

족도리풀은 반그늘 또는 양지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족도리풀은 꽃의 모양이 족도리와 닮았다고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족도리풀의 꽃말은 '모녀의 정' 이라고 합니다. 꽃말과 함께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모녀가 살았는데 딸은 몽골에 공녀로 끌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한 서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어머니도 딸을 그리워하며 평생 동안 울다 지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훗날 이 모녀가 살던 집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이 있었는데 딸이 끌려갈 때 머리에 얹은 족두리의 모양을 한 꽃이라 하여 그 풀을 족도리풀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족도리풀은 뿌리는 세신(細辛)이라고 하는데 매운맛이 나고 감기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족도리풀은 4월과 5월 남창 자연관찰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8 PM 페이지96 Mac1 CTP-2400-CMYK

중의무릇

학명 | *Gagea lutea* (L.) Ker-Gawler
백합과




중의무릇은 4~5월

봄을 알려주는 꽃

중의무릇은 부엽질이 많고 반그늘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중의무릇의 이름을 풀이해보자면 '중의' 란 '산속에' 란 뜻이 있고 '무릇' 은 '물웃' 의 유음화로 굳어진 우리말로 '물+위' 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곧 '무릇' 은 물가나 습기 찬 음지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지닌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중의무릇의 꽃말은 '일편단심' 이라고 합니다. 꽃대가 약하여 바로 서지도 못하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추운 겨울을 견디고 어김없이 봄을 알려줘서 그런 꽃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봄볕이 좋은날을 골라 초록빛이 도는 노란색 꽃이 피는 중의무릇을 보러 봄나들이를 떠나는 것은 어떨까요?



중의무릇은 4월과 5월 백양골 자연관찰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8 PM 페이지98 Mac1 CTP-2400-CMYK

큰구슬붕이

학명 | *Gentiana zollingeri* Fawcett
용담과




큰구슬붕이는 4~5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꽃

큰구슬붕이는 물 빠짐이 좋은 양지에서 잘 자라는 두해살이 풀입니다. 큰구슬붕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은 작고 앙증맞은 모양이 구슬과 비슷하다고 하여 구슬붕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고 구슬붕이 개체 중에서 크기가 커 큰이라는 단어가 붙여지게 되었답니다.

큰구슬붕이와 구슬붕이는 비슷한 식물인데, 구슬붕이는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각각 꽃이 피고, 큰구슬붕이는 하나의 줄기 끝에 다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꽃을 피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큰구슬붕이의 꽃말은 '반가운소식' 입니다. 봄날 큰구슬붕이를 찾아 기쁜소식을 만나보세요.



큰구슬붕이는 4월과 5월 남창 자연관찰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8 PM 페이지100 Mac1 CTP-2400-CMYK

큰꽃으아리

학명 | *Clematis patens* Morren & Decaisne.
미나리아재비과






큰꽃으아리는 4~5월

아름다운 마음의 상징

큰꽃으아리는 반그늘과 토양이 거름지고 습지가 많지 않은 곳에서 잘 자라는 덩굴식물입니다. 으아리란 이름은 정약용의 물명고(物名攷)란 저서에 아사리로 나오는데 그게 변해 으아리가 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중 유난히 꽃이 크고 아름다운 것을 큰꽃으아리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큰꽃으아리의 꽃말은 '아름다운 마음' 입니다. 이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쓰러져버렸습니다. 부인은 온갖 약초를 먹였지만 효과가 없어 절망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노인이 준 약초를 먹이자 남편이 기운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때의 약초가 바로 큰꽃으아리라고 하는데 큰꽃으아리는 꽃도 아름답지만 한방에서 진통, 해독, 이뇨작용을 하는 유용한 꽃이랍니다.



큰꽃으아리는 4월과 5월에 남창지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8 PM 페이지102 Mac1 CTP-2400-CMYK

큰천남성

학명 | *Arisaema ringens* (Thunb.) Schott
천남성과




큰천남성 4-5월

비밀을 간직한 꽃

큰천남성은 숲 속 반그늘에서 잘 자라며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천남성은 하늘에서 가장 양기가 강한 남쪽별 천남성(天南星)의 이름에서 딴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꽃의 모습이 뱀이 머리를 치켜든 것과 같다고 하여 사두초(蛇頭草) 라고도 합니다.

큰천남성은 식물 전체에 독성이 강해 옛날에는 사약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한방에서는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약재로 사용됩니다.

천남성은 암수딴꽃 식물이지만 암수간의 성전환을 하는 특이한 식물입니다. 어릴 때는 대부분 수꽃을 피우다가 크게 자라면 암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암꽃을 피우더라도 두 해 연속해서 열매를 맺는 암그루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다음해에는 꽃을 피우지 않거나 수꽃을 피우는 수그루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큰천남성의 꽃말은 '비밀 '이라고 하는데, 암수가 변하는 꽃의 비밀 때문이 아닐까요?



큰천남성 4월과 5월 남창 자연관찰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8 PM 페이지104 Mac1 CTP-2400-CMYK

피나물

학명 | *Hylomecon hylomeconoides* (Nak.) Y. Lee
양귀비과




피나물은 3~4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노란색 꽃

피나물은 반그늘의 주변에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피나물의 줄기를 자르면 절단면에서 붉은 빛의 유액(乳液)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마치 피(血)와 같은 느낌이 들어 피나물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피나물은 노랑매미꽃이라고 하는데 매미꽃과 매우 닮은 꽃이기도 합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피나물은 주로 꽃대 하나에 여러 개의 꽃이 피는 것에 비해, 매미꽃은 꽃대 하나에 하나의 꽃이 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나물은 주로 관상용 식물이나 어린잎은 식용, 자라면 약용으로 쓰이지만, 독이 있는 유독성 식물이랍니다. 피나물의 꽃말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조금은 뜨끔 할 수 있는 꽃말을 지니고 있습니다.



피나물은 3월과 4월 백양골 자연관찰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8 PM 페이지106 Mac1 CTP-2400-CMYK

현호색

학명 | *Corydalis turtschaninovii* Besser
양귀비과




현호색은 3-4월

인내심을 가진 기다림의 꽃

현호색은 산과 들의 양지나 반그늘, 토양이 비옥한 곳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현호색(玄胡索)이란 이름은 한자어로 검은색 뿌리와 매듭 모양의 새싹을 가진 북쪽지방의 식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불렀던 명칭은 알 수 없습니다.

현호색은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지는 시간까지 길어야 2개월 남짓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짧은 시간의 꽃을 피우기 위해 10개월을 흙속에서 보내는 인내심 강한 야생화랍니다.

현호색의 줄기는 약재로도 사용이 되는데 특히 진통효과와 혈액순환에 좋다고 합니다.



현호색은 3월과 4월 백양골 자연관찰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 봄 2014.11.3 3:28 PM 페이지108 Mac1 CTP-2400-CMYK

흰괭이눈

학명 | *Chrysosplenium barbatum* Nakai
범의귀과




흰괭이눈은 3-4월

봄 햇살 받은 고양이

흰괭이눈은 습기가 많고 반그늘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흰괭이눈의 꽃은 연한 황록색으로 꽃모양이 고양이가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모습과 닮아 지어졌다고 합니다. 또 줄기에는 흰털이 빽빽하게 있어 그 모습이 마치 흰고양이 같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기도 합니다.

봄철 따스한 봄볕에 빛나는 흰괭이눈은 나른한 춘곤증을 날려버릴 만큼 작고 귀여운 꽃입니다.

흰괭이눈의 꽃말은 '골짜기의 황금' 이라고 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들판이 아닌 산속 골짜기 습기가 많고 나무가 우거진 곳에 잘 자라서 사람들이 찾기 어렵기 때문에 아닐까요?



흰괭이눈은 3월과 4월 백양골 자연관찰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